



11인가, 애플 브랜드관 오픈…공식 AS 가능

11인가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등 애플 정품을 모은 ‘애플 브랜드관’(사진)을 오픈했다. 여기서 구매한 제품은 애플 공인 서비스센터를 통해 애프터서비스(AS)를 받을 수 있다. 배송은 11인가의 익일배송 서비스를 활용해 평일 자정까지 주문 시 바로 다음날 배송해준다. 할인 혜택도 마련했다. 신한카드 할인, T멤버십 할인, SK페이 포인트 이용 등 11인가 고객만이 누릴 수 있는 추가 혜택으로 합리적 구매가 가능하다. 그 외 매달 애플 브랜드데이, 신제품 사전예약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도 선보일 예정이다.

육선 “테니스·축구 등 야의 스포츠 용품 불티”



육선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약 두 달(4월18~6월20일) 동안 2030세대 스포츠레저 소비 트렌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제품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요즘 젊은 층에 인기를 끌고 있는 테니스용품의 경우 210% 증가했고, 축구용품도 65% 늘었다.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앞두고 수상 스포츠용품도 214% 증가했다. 반면, 홀트와 요가 용품 등 언택트 시기에 인기를 끌었던 품목의 판매는 소폭 감소했다. 요가와 필라테스 용품은 15%, 야구와 팀볼 등 헬스용품은 21% 줄었다. 육선 관계자는 “코로나 거리두기로 그동안 못했던 야외 스포츠를 즐기려는 보상 심리가 작용하면서, 엔데믹 이후 스포츠레저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힐라, 롯데백 인천점서 ‘테니스 팝업스토어’ 운영



힐라가 7월 3일까지 롯데백화점 인천점 4층에서 ‘힐라 테니스 팝업스토어’(사진)를 운영한다. 브랜드 고유 테니스웨어인 ‘화이트라인’을 비롯해 테니스화 ‘스피드 서브 T9’, ‘스트로크2 T3’ 등 힐라를 상징하는 테니스 주요 아이템을 선보인다. 111년 브랜드 역사 속 대표 종목으로 함께해 온 힐라 테니스 헤리티지를 경험하는 감각적인 장소로 꾸몄다. 테니스 코트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 등 체험공간도 구성했다. 회사 측은 “테니스 제품 구매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며 “이번 롯데 인천점을 시작으로 테니스 팝업스토어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맥도날드, 여름 겨냥 ‘아이스크림 라떼’ 출시



맥도날드의 커피 브랜드 맥카페가 ‘아이스크림 라떼’(사진)를 선보였다. 맥카페의 인기 메뉴 카페라떼에 선데이 아이스크림을 더해 탄생했다. 고소하고 진한 풍미의 카페라떼와 우유 맛이 가득 담긴 달콤한 선데이 아이스크림의 조합으로 여름 시즌 시원하고 달콤하게 즐기기에 제격이다. 회사 측은 “향후 다양한 메뉴 라인업을 선보이며 고객이 식사, 디저트, 커피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브랜드로 다가가겠다”고 했다.

‘뉴 롯데’ 겨냥한 미래 사업에 속도 내는 롯데

양극박 생산 2배 확대…바이오사업 본격 개시

〈배터리 소재〉

롯데가 ‘뉴 롯데’를 겨냥한 미래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 출장 중인 신동빈 롯데 회장은 양극박(2차전지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는 양극 활물질)을 지지하는 동시에 전자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소재) 생산 규모를 늘리기 위한 투자를 결정했고, 바이오 의약품 계열사 롯데바이오로직스도 첫 행보를 개시했다. 이는 신 회장이 1월 상반기 VCM(구 사장단 회의)에서 “시대의 변화를 읽고 미래지향적인 경영을 통해 신규 고객과 시장을 창출하는 데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며 새로운 롯데와 혁신을 주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양극박 생산에 1100억 추가 투자
형가리 최대 규모 물류센터 건립
CGF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롯데바이오, CDMO 톱기업 목표

●형가리 양극박 공장에 추가 투자

유럽 출장 중인 신 회장은 형가리 터터바너 산업단지에 조성된 ‘롯데 클러스터’를 방문했다. 7월 본격 양산을 앞두고 있는 롯데알미늄 공장을 찾아 첫 시제품을 확인하고, 유럽 전기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11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2차전지의 필수 소재인 양극박 생산 규모를 2배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롯데알미늄 형가리 공장은 연간 1만 8000톤 규모의 양극박을 생산할 수 있는 유럽 유일의 양극박 전용 공장이다. 이 밖에도 롯데 클러스터에는 롯데알미늄과 롯데정밀화학이 3000억 원을 투자해 설립한 솔루스첨단소재의 음극박 생산 공장도 인접해 있다. 또 롯데건설은 단일 물류창고 기준 형가리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를 건립 중이다.

또한 신 회장은 21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소비자 업계 글로벌 협의체인



롯데가 미래형 기업을 향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CGF 글로벌 서밋의 롯데 부스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활동을 펼친 신동빈 롯데 회장(위 사진 오른쪽)과 최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2022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에 마련한 롯데바이오로직스 부스.

사진제공 | 롯데

CGF의 글로벌 서밋 롯데 부스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 펜스코, P&G, 월마트, 레베 등 글로벌 최고경영자들과 가진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부산세계박람회를 홍보

하며 유치 지원에 힘을 실었다.

롯데는 하반기 VCM도 부산에서 개최한다. VCM이 롯데 주요 계열사 대표 및 지주사 임원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그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롯데 계열사들의 실질적이고 전방위적 지원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공식 행보 시작

최근 출범한 바이오 의약품 계열사 롯데바이오로직스도 13~16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2022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에서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국내·외 유수의 바이오 업체들이 대거 참가하는 글로벌 바이오산업 행사에 참가해 본격 대외활동에 나선 것이다.

목표는 2030년까지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CDMO(위탁개발생산) 톱10 기업으로의 성장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시에 위치한 BMS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장을 인수한 데 이어, 1조 원 규모의 국내 공장 신설도 추진한다. 국가적 차원의 고용창출 및 산업 발전을 위해 인건 송도와 충북 오송 등의 국내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는 “CDMO에는 임상 생산과 상업 생산의 두 부류가 있다. 임상 생산의 경우, 고객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유연성을 강조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속도, 품질, 가격 등을 우선으로 마케팅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로,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가격의 경우, 생산이 많을수록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이훈기 롯데지주 부사장 겸 롯데헬스케어 대표·롯데바이오로직스 이사회 의장은 “롯데의 사업은 크게 식품, 화학, 유통, 호텔 등 4가지 포트폴리오로 상정되는데, 바이오를 이에 버금가는 포트폴리오로 키우고자 하는 것이 목표”라며 “기존 사업 중 경쟁력이 없거나 현재 돈을 벌고 있더라도 미래 전망을 봤을 때 유망하지 않은 사업은 바이오·헬스케어에 투자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iaay@donga.com

LG전자·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 로봇 등 미래 기술 공동개발

차내 사용자경험·가전·모빌리티 등 서비스 공동개발·생태계 확대 MOU

LG전자와 카카오모빌리티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 기술 협업을 통한 서비스 공동 개발과 생태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차내 사용자경험(In-Car UX) 연구개발 ▲실내·외 자율주행로봇 배송서비스 실증사업 추진 ▲모빌리티와 가전 사업 간 데이터 연계·결합을 통한 새 서비스 개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스마트폰 솔루션 ‘Soft V2X(차량과 모든 개체 간 통신)’ 기술 협력 ▲스타트업



LG전자 CTO 김병훈 부사장(왼쪽)과 카카오모빌리티 CTO 유승일 부사장(오른쪽).

생태계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할 고객경험 기반의 차별화된 기술·서비스를 발굴하는 데 집중한다. 그동안 축적해 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로봇, 데이터 융합, 통신 등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카카오모빌리티만의 플랫폼 운영 노하우 및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능력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양사는 실내·외 로봇 배송 서비스에 대한 실증사업도 실시한다. LG전자의 자율주행로봇 및 배송 솔루션을 카카오모빌리티 관계 플랫폼과 결합해 건물 안에서 물

건을 배송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하고, 향후 이동 산업과 연계한 서비스 개발도 협업할 예정이다. 또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이 탑재된 차량에 LG전자의 차량용 HMI(인간-기계 상호작용) 솔루션을 적용해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고 검증할 계획이다.

한편 양사는 올해 초 열린 카카오모빌리티 테크 컨퍼런스에서 ‘LG 옵티핏’의 전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모빌리티 분야 협업을 이어왔다. LG 옵티핏은 차량을 집의 새로운 확장공간으로 해석해 만든 미래 자율주행차의 콘셉트 모델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안전운전하면 1만원 기부”…현대차, 교통안전공단과 캠페인 실시

안전운전 서약·챌린지 참여 시 적립 7월1일부터 운영…1억 모금 추진

현대자동차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안전운전 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한다. 현대자동차는 21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오늘도 안전운전’ 캠페인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늘도 안전운전’은 현대자동차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7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공동으로 운영하며, 고객이 안전운전 서약 및 챌린지에 참여하면 건당 1만 원의 기금이 적립되는 캠페인이다.

캠페인 기간 동안 ▲급가속 ▲급감속 ▲심야운행 횟수 등의 운전자 주행이력을 분석해 캠페인 종료 후 평균 안전운전 점수가 70점을 넘고 누적 주행거리가 500km 이상인 참여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

경품은 ▲LG전자 스탠바이미(1명) ▲텐트, 매트, 의자, 테이블 등 캠핑세트(2명) ▲프리미엄 디테일링 세차권(3명) ▲실내외 스림 세차권(25명) ▲현대오일뱅크 주유상품권 3만원권(500명)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자동차 통합고객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마이현대(MyHyundai)’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현대자동차는 최대 1억 원 모금을 추진하고 후원금은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들이 경제적 자립기



유원하 현대자동차 국내사업본부장(왼쪽)과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사진제공 | 현대차

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선형성 사업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